서귀포시내

로컬맵 Paper what?

N	장소 이야기	Spot Story
N	도심 속 녹색공간	Good place to take a break
===	걷기 좋은 길	Good place for a walk
C	문화공간	Culture Space
🚌	버스정류장	Bus Stop
P	공영주차장	Public Parking P무료 P유료
WC	공공화장실	Public Restroom
S	주민센터	Community Service Center
▬	시장 아케이드	Seogwipo Arcade Shopping District
N	시장 입구번호	Gate number of Arcade Shopping District
┅	테마거리	Theme Street
👁	뷰포인트	View Point

N
흙담솔길
서귀북초등학교
Seogwibuk Elementary School
홈플러스
Mart
중산간도로 방향
산짓물 물놀이장
제2산록도로, 솔오름 방향
등홍초등학교
Donghong Elementary School
11 굴왓공원
서귀포 외국문화학습관
Seogwipo Foreign Language Education Center
서귀포학생문화원
Seogwipo Student's Cultural Center
서귀포도서관
Seogwipo Public Library
제주유아교육진흥원
서귀포 테니스장
Tennis Courts
실내테니스장
동홍동 주민센터
12 희망공원
민우아파트
서귀포고등학교
Seogwipo High School
동홍생활체육관
에벤에셀 어린이집
우성빌라
동홍동 힐링길
서홍동 주민센터
서귀포의료원
Hospital
서귀포사회적 경제복지센터
17
서귀중앙여자중학교
Seogwi Jungang Girls School
서귀포열린병원
Hospital
동홍사거리
남원 방향
일주동로
서귀포 기적의도서관
Public Library
서귀포 노인복지회관
야외공연장
8 문부공원
서귀포교회
서귀서초등학교
Seogwiseo Elementary School
서귀포시청 제 1청사
Seogwipo City Hall
우생당
걸어서 5분
5 MINUTES WALK
연외천
호근천
1 솜반내공원
Sombannae Park
솜반내풍경
11 솜반내
Sombannae
서귀포보건소
Seogwipo Public Health Center
서귀포시 청소년문화의집
Youth Center
중앙치안센터
Police Station
제주지방법원 서귀포시법원
서귀포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3F)
제주권역제활병원
Hospital
서귀중앙초등학교
Seogwi Joongang Elementary School
코리아마트
Mart
제주웹툰캠퍼스
아시아CGI 애니메이션센터
CGI
서귀포 신시가지, 중문 방향
일주동로
광하탕
서귀포약국
1 중앙로터리
Jung-ang Rotary
서귀포동물 의료센터
15 서귀포시민회관
Seogwipo Citizen Hall
서귀포자기주도 학습지원센터
9 태평공원
13 천지공원
옛 터미널
글이야기
갤러리하루
올레길 7-1코스
농구장
걸매축구장
2 걸매생태공원
Geolmae Eco Park
걸매마을 산책로
아랑조을거리
법장사
서귀포평생학습관
Seogwipo Learning Center
청년다락
14 중앙공원
짱구분식
동홍천
516도로 방향
중앙동 주민센터
4 3 6 5 2 1 7
14 서귀포매일올레시장
Seogwipo Maeil Olle Market
가로수 리버볼
아라도 노래연습장
동명백화점
MART
옛 동명백화점
Dongmyeong Shopping Mall
13
동문로터리
삼진탕
동홍119센터
Fire Station
외돌개입구 교차로
서문로터리
18 천지연폭포
Cheonjiyeon Falls
천지동 주민센터
서귀포중앙동우체국
Post Office
예술공간오이(-1F)
스타트업베이(2F~3F)
서귀포중학교
Seogwipo Middle School
별책부록
제주올레여행자센터
Jeju Olle Tourist Center
까사로마호텔
3 이중섭 거리
Lee Joongseop st.
서귀포예술시장
Seogwipo Art+Flea Market (every weekend)
서귀본향당
Seogwi Bonhyangdang
2 이중섭미술관
Lee Joongseop Art Museum
5 서귀포 관광극장
Seogwipo Tourist Theater
15 이중섭공원
4
정방동 주민센터
10 제석공원
정방동 문화의집
7 정모시쉼터
서귀포 예술의전당
Seogwipo Arts Center
3 서귀포 칠십리시공원
Seogwipo Chilsimni Poetry Park
연외천
16 기당미술관
Gidang Art Museum
삼매봉도서관
Sammaebong Public Library
덕판배미술관
남성중로
유토피아 커뮤니티센터
이중섭 창작스튜디오
서귀포문화원
이중섭 문화예술거리
소암기념관
Soam Memorial Hall
송산동 주민센터
송산청소년문화의집(2F)
서귀포 자치경찰대
Police Station
진영슈퍼
서복전시관
Seobok Exhibition Hall
6 서복공원
서귀포 종합관광 안내소
Tourist Center
샛기정 산책로
나포리호텔
7 솔동산
Sol-dongsan
서귀포성당
Seogwipo Catholic Church
6 서귀포초등학교
Seogwipo Elementary School
8 서귀진지
Seogwi JinSeong Old Place
칠십리교
칠십리 야외공연장
Chilsimni Outdoor Stage
로즈마린
칠십리음식특화거리
소남머리
5 12 자구리 문화예술공원
Jaguli Art Park
서귀포해양 도립공원
벼락마진디
합망당
서귀동 어촌계복지회관
벼락마진디
칠십리로
서귀포해양경찰파출소
Police Station
서귀포시 장애인회관
서귀포 층패류화석산지
서귀포유람선
10 새연교
Saeyeon Bridge
4 9 새섬공원
Saeseom Park
서귀포항 여객선터미널
Seogwipohang Ferry Terminal
서귀포항
Seogwipo Port

로컬맵 서귀포시내 PaPer what?

로컬맵

paper what?

서귀포 시내

로컬맵 [paper what?]은 우리 동네가 가진 일상의 특별함을 더 많은 사람들과 공유하기 위한 이야기지도입니다. 마을이 가지고 있는 개성과 가치를 찾아내어, 쉽고 재미있게 풀어갑니다.
이 프로젝트를 통해 지역의 이야기와 개성이 담긴 새로운 콘텐츠들이 만들어지고, 지역의 가치를 재발견하는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기록 장소 : 서귀포 시내 일대
기록 년도 : 2020년
기획, 진행 : 왓집, Lab.왓
기록, 인터뷰 : 김정희, 문주현, 윤선희
일러스트, 편집 : 황예지, 문주현

©2020-2021. 왓집·Lab.왓 all rights reserved
이 책은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받는 저작물이므로 무단전재와 복제를 금지합니다.

이 지도는 2020 청주 문화도시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일부 지원을 받아 제작되었습니다.
주최 : 청주시, 주관 :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

왓집 **Lab.왓**

지역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고,
그 장소의 흔적을 아카이브합니다.

장소에 얽힌 사람과 역사, 문화, 자연, 삶의 이야기를 모아 기록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다양하고, 다채로운 문화예술프로젝트를 상상합니다.

www.culturalwhat.com
instagram @spacewhat_jeju
www.facebook.com/culturalwhat
E-mail : culturalwhat@gmail.com

Lab. what? + 왓집
지역 아카이빙그룹 문화실험공간

서귀포 시내 이야기

잘 알려져 있듯 서귀포는 따뜻하고 온화한 날씨와 함께 감귤, 과수원, 어업·수산업, 관광 등으로 누적된 다양한 경험과 여유로움을 자랑한다. 그런 서귀포에서 “서귀포 시내는 어디인가?!” 라고 물었을 때 딱! 떠올리는 곳이 바로 이 동네다.
삼매봉 서쪽 서홍천과 동홍천 사이, 서귀포항을 끼고 있는 동네는 현재 중앙동, 천지동, 정방동, 송산동이라는 4개의 행정동으로 나뉘어 있지만, 원래 ‘서귀리, 서귀동’이라는 하나의 마을이었다. 옛 ‘서귀리’는 조선 시대까지 큰 마을이 아니었다. 일제강점기에 서귀포항과 일주도로를 연결하는 마을로 급격히 성장하여 근현대사에서는 서귀포 전체를 대표하는 마을로 자리 잡았다. 처음에는 항구와 가까운 솔동산에 서귀포를 대표하는 행정기관과 금융기관, 산업기반시설, 상점 등이 들어섰는데, 서귀포시청(옛 남제주군청)이 지금의 중앙로터리(일호광장) 북쪽으로 옮겨지며 시내가 지금처럼 남북으로 길게 형성되었다.
‘서귀포 시내’는 서귀포를 압축해 놓은 듯 느끼고, 경험하고, 생활할 수 있는 매력 넘치는 동네이다. 시내 한가운데에 전통시장을 비롯하여 가볍게 걷거나 차로 짧게 이동할 수 있는 거리 안에 아름다운 자연경관, 잘 정비된 공원, 체육시설, 상업시설, 편의시설들이 모여있어 차 없이 생활하기에도 좋다. 여름철의 장마는 길고 습하지만, 그보다 긴 시간 동안 기분 좋은 햇살이 내리쬐기 때문에 잠깐의 휴식에도 행복한 기운과 푸릇푸릇한 생명력을 만끽할 수 있다.

1.중앙로터리(일호광장)

7개의 도로가 교차하는 서귀포 교통의 구심점.
1966년 처음 만들어지면서 ‘1호광장, 일호광장’이라고도 불리는 거대한 로터리는 가운데 동그란 화단을 두고 서귀포의 주요 지역을 연결하는 7개의 도로가 교차하는 곳이다. 로터리가 처음 생길 무렵에는 주변이 허허벌판이었고, 지금처럼 넓은 길도 아니었지만, 근처에 남제주군청과 서귀포 경찰서(지금의 서귀포시청 자리), 시외버스 터미널, 그 밖에 여러 학교가 들어서고, 서귀포 오일장도 1974년 근처로 옮겨오며 서귀포 시내의 새로운 중심지로 성장했다. 오일장은 1995년에 동홍동으로 옮겨가면서 지금은 볼 수 없지만, 오일장이 열리는 날이면 서쪽 솜반천에서 시작해 중앙로터리 입구까지 천막을 세운 노점이 길게 늘어서고 수많은 사람이 모여들어 진풍경을 이루었다. 지금도 중앙로터리에는 서귀포 주요 노선의 시내버스는 물론 시외버스, 공항버스 등이 정차하며, 주요 은행이 모여있다.

Tip! 버스를 탈 때나 약속을 잡을 때 로터리 동쪽과 서쪽을 꼭 구분해서 기억해야 시간을 절약할 수 있다. 서귀포약국을 기준으로 약국이 있는 곳이 서쪽, 그 반대편을 동쪽으로 기억하면 편하다.

2. 이중섭 미술관과 거주지

서귀포를 유토피아로 여겼던 화가 이중섭의 작품이 있는 미술관과 그가 가족과 함께 머물렀던 집.
소 그림으로 유명한 이중섭은 서귀포 출신은 아니지만, 서귀포에서 가장 유명한 화가이다. 한국전쟁 때 가족들과 함께 서귀포로 피난 와서 지금 이중섭 거주지로 알려진 집의 방 한 칸을 빌려 그림을 그리며 지냈다. 이중섭이 서귀포에 산 것은 1년이 채 되지 않지만, 그의 그림에 표현된 서귀포의 모습은 황금빛 과일과 바다와 하늘을 누비는 아이들로 가득하다. 그에게 서귀포의 삶은 가난하고, 작가로도 외로웠지만,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낸 따뜻하고 행복한 기억이었다.
거주지 뒤쪽에 있는 이중섭 미술관은 2002년 개관했다. 현재까지 이중섭의 원화 총 47점(은지화 25점)을 수집하여 소장·전시하고 있으며, 이중섭과 관련된 기사와 편지, 이중섭이 사용했던 팔레트 등도 볼 수 있다.
관람시간 : 09:00~18:00, 하절기(7월~9월) 09:00~20:00, (휴관 : 매주 월요일, 1월 1일, 설날, 추석) 관람료 : 어른 1,500원, 청소년 800원, 어린이 400원

LOCAL TIP
내가 다시 싱글이 된다면 !
황예지(30대/15개월 아기 엄마가 된 그림 그리는 사람)

날씨에 맞는 적당한 옷을 입고, 운동화를 신고, 카메라를 챙기고, 걸리적거리지 않는 넉넉한 바디백을 메고 집을 나선다. 유동커피에서 싸고 맛있는 커피 한 잔을 텀블러에 포장해서 익숙한 길이 아닌 가보지 않은 골목만 골라서 걷는다. 고양이를 따라가며 찰칵. 빛과 그림자가 만든 그림도 찰칵. 하늘과 나무가 만든 추상화도 찰칵.
‘다음엔 이런 그림을 그려야지’ 생각하며 종일 싸돌아다니다보면 어느새 큰 힘이 되었던, 작고 작은 나의 서귀포. 쪼끄만한 동네라 길을 잃고 싶어도 잃을 수 없다.

3. 이중섭 거리

크고 작은 공방이 모여있는 문화예술의 거리.
1995년 미술의 해를 기념해 이중섭 거주지에 기념 표석이 세워지고, 이듬해 거주지 앞의 도로를 ‘이중섭 거리’로 지정했다. 처음에는 보행로 일부에 아케이드로 된 야외전시대에서 시내 여러 단체와 동아리의 시화, 사진, 만화 등의 전시가 이루어졌고, 그러다 2008년부터 시민 창작자들에 의한 ‘서귀포예술시장’이 지속적으로 열리면서 관광객들에게도 알려져 지금은 아기자기한 공방과 개성 있는 카페, 창작 스튜디오가 모인 거리가 되었다. 옛 건물과 공원, 돌담, 개성있는 가게들에서 느껴지는 풍부한 색채와 물건을 구경하고 사진을 남기며 즐거워하는 사람들의 활기까지. 기분 좋은 여유로움을 느낄 수 있는 곳으로 인기를 얻고 있다.

Tip! 가파른 언덕에 차도가 울퉁불퉁하게 포장되어있어 자동차보다 도보로 구경하길!!

4. 서귀포관광극장

지붕이 사라지고 하늘과 넝쿨 가득한 돌벽을 배경으로 삼은 극장.
이 극장은 1963년에 개관한 서귀포 시내의 첫 번째 극장으로, 당시에는 영화 상영뿐만 아니라 학교 학예회, 대중가수나 악극단의 공연, 웅변대회 등 크고 작은 행사들도 소화했던 실내극장이었다. 1973년 밤 9시에 영화 상영 중 전기 누전으로 불이 났을 때 800명(원래 정원은 667명) 넘는 관객이 대피했다는 기사를 보면 극장 이용객이 적지 않았음을 예상해볼 수 있다. 그러다 화재로 인해 극장 운영이 중단되고, 1990년대 완전히 문을 닫은 뒤 15년간 방치되며, 태풍으로 지붕이 날아가고, 칠도 벗겨지고, 벽도 허물어져 현무암으로 된 벽이 드러났다. 지금은 그 모습을 살려 2015년부터 지붕이 열린 야외공연장으로 사용하고 있다. 건물은 밖에서 보면 낡고 오래된 공간이지만, 공연이 열리는 날이면 예전 상영관이었던 공간이 시간을 겪어내며 만들어낸 독특한 분위기와 울림을 가진 야외공연장으로 바뀐다.

Tip! 특히 노을 지는 하늘, 별이 빛나는 하늘을 배경으로 하는 저녁 시간의 공연은 바닥난 감성도 끌어올려 줄 만큼 낭만적이다. 공연은 비정기적으로 열리고 있는데, 대부분은 ‘서귀포문화예술포털’, ‘작가의 산책길’ 홈페이지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5. 서귀본향당

서귀동과 동홍동 주민들이 함께 모시는 서귀포에서 가장 큰 당.
서귀포관광극장 왼쪽 골목 앞에는 서귀본향당 표지판이 붙어있다. 그 길을 따라 들어가면 길이 끊긴 것 같지만, 주택 옆으로 난 좁은 길 너머로 초가 모양으로 정비되어있는 서귀본향당이 보인다.
서귀본향당에는 서귀, 동홍, 서홍 마을의 관계가 담긴 본풀이가 전해온다. 바람운(보름웃도)님이 고산국과 혼인하였다가 미모가 뛰어난 고산국의 동생인 지산국과 사랑에 빠져 도망친 뒤 서귀본향당에 자리를 잡았다. 그런데 고산국이 쫓아와서 셋이 모두 따로 자리 잡기로 결정하고, 활을 쏘아 떨어지는 마을을 차지한다. 이때 바람운이 서귀아랫마을, 지산국이 동홍마을, 고산국이 서홍마을을 차지했다. 이러한 이유인지 서귀와 동홍은 함께 당신을 모시고, 동홍과 서홍 마을 사이에는 서로 땅 거래도 안 하고, 마을 간의 결혼도 꺼렸다고 한다.

Tip! 서귀포 시내에는 포제가 없다?!?! 제주도에서는 매년 마을 단위로 유교식 마을제인 포제를 지내며 마을의 안녕을 기원하는 의례를 치른다. 서귀포 시내에서 열리는 포제는 서홍동주민센터에서 열리는 서홍마을의 포제가 유일하다. 서귀와 동홍마을은 본향당이 있어서 포제를 별도로 시작하지 않았다고 하고, 송산동은 포제를 하고 있지만 시내에서 벗어난 보목마을회관에서 포제를 행하고 있다.

LOCAL TIP
골목 속 제주어 간판찾기
유달(30대 / 문화기획자)

먹거리 골목인 아랑조을거리에 가면 가게의 개성에 맞춰 제주어로 매력을 더해주는 특색있는 제주어 간판들을 만나 볼 수 있다.
제주사람이라면 정겹고 재치있는 제주어 멘트에 웃음이 빵빵, 타지사람이라면 뜻을 유추해보며 재밌고,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을 것이다.

LOCAL TIP
서귀포 속살의 낮과 밤
시아(불혹/ 지구를 지켜보고자 착한 일회용품을 파는 외계인)

차도 안 막히고 유명한 김밥집 말고는 줄 설 일도 없는 서귀포. 그래선지 느린 템포의 음악이 어울리는 매력적인 곳입니다. 어쩌면 루즈하다 여겨질지도 모르겠지만 그 루즈함마저 즐길 수 있는 스팟들이 있지요.
바다가 코앞인 검은여 길을 걷다 보면 한겨울에도 발을 담그고 싶어져요. 발이 시렵다면 손으로 바다를 만지고 하나같이 예쁜 돌멩이들을 골라보는 재미도 있습니다. (주의:걷다가 걷다가 볼레리[보목의 옛명칭]가 나오는 수가 있음)
햇살 좋은 낮이나 해질녘, 보목-서귀포방향으로 걷다 보면 매직아워의 바다와 숲섬에 가슴 벅찰 정도의 감동이 밀려와요! 서귀포와 사랑에 빠져버릴 수밖에 없겠죠?
이제 야경을 보러 가야겠습니다. 일명 남고(남주고)위 솔오름 전망대는 시내와 가깝지만 서귀포 시내의 야경을 한눈에 내려다 볼 수 있는 곳입니다. 담력 강화를 위해 돈내코 부근 공동묘지로 가면 더 업그레이드된 야경이 기다리고 있으니 꼭 시도해보시길 :)

6. 서귀포초등학교

1920년 개교해 100년 전통을 이어오고 있는 초등학교.
1920년 이전까지 제주도에는 제주도민을 위한 공립보통학교(지금의 초등학교에 해당)가 제주, 대정, 정의 등 세 군데에만 있었고, 당시 읍면 정도의 규모였던 서귀포에는 서귀진성 터 남쪽에 일본인 전용 초등교육 기관만 있었다. 그러다 서귀포 시내에 처음 근대식 초등교육기관으로 만들어진 것이 솔동산에 세워진 서귀공립보통학교(현재 서귀포초등학교)이다. 조선총독부가 1918년부터 3개의 면에 1개의 보통학교를 두는 ‘3면 1교 주의’ 정책을 시행하면서 만들어진 것으로, 서귀북초등학교가 생긴 1964년까지 약 40여 년간을 서귀포 시내의 유일한 초등학교로 서귀포 아이들의 교육에 큰 영향을 미쳤다. 교가의 한 부분처럼 서귀포 앞바다를 푸른 운동장 삼은 졸업생이 1만 6천 명에 이르고, 현재까지도 역사 깊은 명문 축구부를 자랑하는 학교이다.

Tip! 학교 남쪽에는 생태연못 ‘들꽃마을생터’가 조성되어 학생들의 생태체험 및 주민들의 휴식공간으로도 사랑받고 있다.

LOCAL TIP
서귀포를 즐기는 나만의 방법
갑자기(30대/서귀포에 푹 빠져있는 제주시사람)

상쾌한 아침엔 걸매생태공원으로! 커피와 빵을 챙겨 연못이 보이는 곳에 자리잡는다. 나무들과 절벽 위 건물들의 모습이 한 장의 수채화같다.
날씨가 좋은 날엔 자구리공원으로! 잔디에 앉아 피크닉을 즐기며 보는 바다뷰가 끝내준다.

7. 솔동산

서귀포 초창기의 중심지.
이중섭거리 남쪽에 활 모양의 장식물은 ‘솔동산 문화의 거리’의 입구이다. 게이트(Gate)에서 남쪽으로 서귀진성 일대까지를 ‘솔동산’이라고 부르는데, 지명의 유래는 서귀진에서 왜군을 막기 위해 활쏘기 훈련을 하던 곳으로, 훈련을 위해 동산에 과녁인 ‘솔대’를 세웠다고 해서 붙은 이름이라는 설과 소나무가 많아서 붙은 이름이라는 두 가지 설이 있다.
일제강점기인 1920년대부터 면사무소, 경찰서, 우편국, 제주도지청 등 근대적 관공서와 항만개발로 인한 금융조합 등 산업기반시설이 모여있던 동네이다. 대부분의 관공서가 다른 곳으로 옮겨간 1980년대까지 서귀포 근현대의 번영과 함께했고, 그래서 4·3의 아픈 기억까지 공존하는 지역이기도 하다.

LOCAL TIP
시내에서 식재료 구입 포인트
큰썬언니(60대/콩국수달인 옛 덕홍반점 사장님)

요즘에야 마트에서 사는 것도 많지만, 그래도 시간이 되면 입에 맞고, 눈에 익은 가게를 찾아가 식재료를 구입한다. 두부와 콩물은 매일올레시장 롯데리아 근처의 즉석두부집, 자잘하게 여러 채소가 필요하면 옛 목화백화점 앞 문평식품에서 구입한다. 워낙 떡을 좋아해서 장 볼 때 할머니 떡집에 가서 팥시루떡이나 가래떡, 인절미도 조금씩 산다. 가족들이 고기를 좋아하다보니 고기 살 때는 오일장 옆에 있는 천지연육가공에 가서 한번에 많이, 저렴하게 사다 놓는다.

LOCAL TIP
놀러온 친구와 찐하게 즐기는 서귀포
김재한(30대끝 / 40년 가까이 서귀포를 떠나본 적 없는 서귀포 알파고)

이른 아침, 서귀포항에 가서 뜨끈한 해장국을 먹고 편의점 커피를 사서 새섬공원을 한 바퀴 돈다. 조금 쉬다가 함께 솔오름을 오른 뒤 점심으로 몬스테라 쌀국수나 덕성원 짬뽕을 먹는다. 오후엔 이중섭거리와 매일시장을 둘러보고는 웅담식당에 가서 솥뚜껑 삼겹살과 한라산 소주를!
제리스펍에서 2차로 맥주를 마시고, 3차로 천지연 로즈마린에 가서 새연교 야경을 즐기며 찐하게 마무리!

9. 새섬과 새섬공원

서귀포항과 태평양을 나누는 섬
서귀포항 바로 맞은 편에는 ‘새(띠를 의미하는 제주어)’가 많다고 해서 ‘새섬’이라 불리는 섬이 천지연 남쪽 해안과 연결되어 있다. ‘새’는 제주도의 초가에서 지붕잇기에 사용하는 풀이다. 섬에서 ‘새’를 베어다가 잘 말려서 정월에 지붕잇기에 이용했다고 한다. 조선 시대에는 섬에 농사를 짓는 민가도 있었다고 하는데, 1960년대 이후로 사람이 살지 않아 지금은 무인도로 공원과 산책로가 조성되어 있다.

Tip! 새섬 주변 해역은 범섬, 문섬, 숲섬, 지귀도 등 5개의 섬과 함께 서귀포 연산호 군락으로 2004년 지정되었다. 제주의 바닷속이 궁금하다면 새연교 입구에 있는 서귀포잠수함을 통해 새섬보다 남쪽에 있는 문섬의 바닷속을 관람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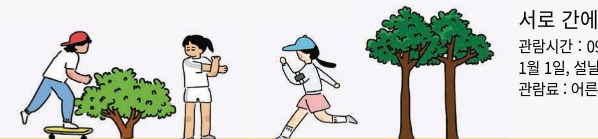
12. 자구리 문화예술공원(자구리공원)

서귀포 앞바다를 시원하게 바라보는 문화예술공원.
서귀포항 동쪽에서 시작해 해안가를 따라 서복전시관 앞 서복공원까지 이어지는 넓은 공원이다. 공원 곳곳에는 푸른 잔디와 산책로, 예술작품이 바다를 배경으로 서 있다. 공원 아래쪽 자구리 해안은 원래 아는 사람만 아는, 마을 사람들의 물놀이 장소였다. 화가 이중섭도 서귀포 생활 중에 아이들과 함께 나와 게와 물고기를 잡으며 시간을 보냈다고 한다. 현재는 해안가 주변으로 시야가 트인 잔디밭에서 다양한 행사, 축제, 공연, 버스킹, 플리마켓이 자주 열리고 있어 아이들과 함께 시간 보내기에 좋다.

Tip! 자구리 해안과 공원으로 이어진 ‘소남머리’에도 잘 정비된 노천 담수욕장이 있다. 담수욕장은 도로 쪽에서는 잘 보이지 않고, 절벽 사면을 따라 계단을 내려와야 볼 수 있다.

13. 옛 동명백화점

한때 서귀포 시내의 대표적 약속 장소였던 쇼핑몰.
지금은 영업하지 않지만, 1975년 백화점이라는 이름을 달고 서귀포 시내 대형 쇼핑몰로 처음 오픈해서 2000년대까지도 서귀포 쇼핑 중심지의 랜드마크였던 장소이다. 지하 1층, 지상 3층의 건물에는 다양한 잡화와 문구, 옷가게, 푸드코드, 서귀포에 몇 없던 레코드숍 등이 자리하고 있었고, 백화점 앞 계단에는 약속한 사람을 기다리는 이들이 삼삼오오 모여 있었다. 백화점이 영업을 멈추고 안전울타리가 둘러싸기 전까지도 백화점 앞 계단은 서귀포 시민들이 이 동네에서 만남을 시작하고 끝을 맺는 만남의 장소였다.



15. 서귀포시민회관

1972년부터 여러 공연과 체육행사가 열렸던 곳.
서귀포시민회관은 1972년에 처음 ‘남제주군민회관’으로 문을 연 뒤, 1981년 서귀포시 승격에 맞춰 시민회관으로 이름을 바꿨다. 시민회관이 들어서기 전까지 서귀포관광극장, 샛기정공원 근처의 서귀읍민관 등에서 열렸던 시내 학생들의 예술제와 전시회, 여러 단체의 대회 등이 이곳으로 옮겨왔다. 국립합창단 순회공연이나 태권도 선수 선발대회, 대규모 강연회, 간담회, 정당대회 등 지역에서 많은 사람이 모여야 하는 행사들도 주로 이곳을 거쳐 갔다. 서귀포시립합창단도 이 자리에서 시작했다. 이제 새로운 모습으로 바뀔 예정이지만, 서귀포 시민들의 역사와 추억이 가득한 장소이다.

16. 기당미술관

화가 변시지와 서예가 강용범의 작품을 볼 수 있는 우리나라 최초의 시립미술관.
삼매봉으로 향하는 길옆으로 원통이 여러 개 모여있는 모양의 현무암 건물은 서귀포 법환동 출신으로 일본에서 성공한 재일교포 사업가 기당 강구범 선생의 기부금과 시민들의 성금을 모아 만들어진 미술관이다. 1987년 미술관을 짓고 서귀포시에 기증했는데, 국내 최초의 시립미술관으로 많이 알려진 서울시립미술관보다 1년이 빠르다. 화가 우성 변시지와 서예가 수암 강용범의 작품을 상설전시하고 있다. 황토색 바탕에 수묵화를 그려놓은 듯한 화풍으로 유명한 화가 변시지, 일필휘지의 속도감이 살아있는 문체의 서예가 강용범은 각각 기당선생의 외사촌과 친형으로 서로 간에 인연이 깊은 인물이다.
관람시간 : 09:00~18:00, 하절기(7월~9월) 09:00~20:00, (휴관 : 매주 화요일, 1월 1일, 설날, 추석)
관람료 : 어른 1,000원, 청소년 500원, 어린이 300원

17. 서귀중앙여자중학교(옛 제주대학 농과대학 건물)

건축가 김중업이 설계한 건물에 들어선 여자중학교.
1981년 개교한 서귀중앙여자중학교의 본관은 우리나라 근대건축의 거장인 건축가 김중업이 설계했다. 창문 앞에 기류나 빛의 투과를 조절하기 위해 사선으로 뻗어나온 루버(Louver, 차광막)가 매력적인 이 건물은 원래 1971년 제주대학교 농과대학 수산학부로 지어졌다. 지금은 제주대학교가 모두 제주시에 있지만, 1960년대 제주시 용담에 있던 캠퍼스에서 이농학부를 분리해 서귀포 캠퍼스를 만들었고, 1971년에 신설한 수산학부도 서귀포에서 1980년까지 운영했다. 이때 용담 캠퍼스 본관을 설계했던 건축가 김중업이 수산학부 건물도 맡았다. 지금도 여전히 수평의 면과 수직의 띠, 간결하지만 조형적인 실내계단 등이 잘 남아있다.

LOCAL TIP
맛집 아닌 맛집과 오래된 가게
깅(30대 / 서귀포에 마음으로 살고 있는 연구꿈나무)

알려진 맛집과 가게는 저리가라~ 서귀포 일호광장 동네에도 “이걸 먹으려면 여기, 저걸 사려면 저기!”하고 떠오르는 주옥같은 가게들이 있다. 냉면하면 대광장식당, 닭내장탕·닭곰탕하면 본전식당, 두루치기는 용이식당, 안경이 필요하면 한라안경, 악기를 고치거나 악보가 필요할 때는 로망스기타, 사우나는 광하탕, 아플 때는 서귀포내과!!! 아싸라비아 콜롬비아~호잇호잇! 다들 서귀포에서 애정하는 가게들과 오랜 시간 함께하시기를!!!

서귀포 시내의 녹색공간들

서귀포 시내 곳곳에는 크고 작은 공원과 산책길이 많이 있다. 미술관이나 도서관 같은 문화시설, 아름다운 자연경관 주변에는 산책로와 공원이 있고, 그중에서도 조망이 멋진 곳에는 작은 전망대가 놓여있다. 어디서나 흔하게 볼 수 있는 놀이기구와 운동기구 몇 개가 놓인 도심 속 작은 공원도 온화한 날씨와 밝은 햇살 덕인지 푸르름이 남달라 눈으로 사이다를 먹은 듯 청량한 느낌을 준다. 거기에 예술가와 문화기획자, 마을 주민들이 머리와 손을 모아 만들고 관리하는 여러 산책·기행 코스가 더해지면 산책로는 길 위의 미술관, 마을 박물관, 힐링 코스로 변신해 걷는 길에 다채로움을 더한다. 서귀포의 자연, 인문, 문화·예술을 거미줄처럼 복잡하지만 느슨하게 이어붙이고 있는 서귀포 시내의 녹색 공간들을 소개한다.

작가의 산책길 서귀포에 머물며 예술적 영감을 받았던 예술가들의 삶과 작품을 감상할 수 있는 산책길. 2012년, 2014년 예술프로젝트를 통해 전시된 40여점의 조형작품을 함께 감상할 수 있다.
이중섭미술관-커뮤니티센터-기당미술관-칠십리시공원-자구리해안-소남머리-서복전시관-소정방-소암기념관-이중섭공원(4.9km, 2시간소요) / 해설탐방(매주 토,일 오후1시) / 문의 064)732-1963 / culture.seogwipo.go.kr/artroad

서귀포 건축문화기행 건축적 가치가 뛰어나고 제주의 특징이 잘 나타난 서귀포의 장소들을 탐방 할 수 있는 코스. 총 10개의 코스가 있으며, 4코스와 5코스가 서귀포시내를 지나간다.
한국건축거장 5코스:기당미술관-서귀중앙여자중학교(구.제주대학 농과대학)-서귀포기적의도서관-구.소라의성 / 문의 (064)760-3942 / culture.seogwipo.go.kr/architours

송산컬처트랙 각각의 장소에 QR코드가 설치되어있어 주민들이 직접 들려주는 송산동 이야기를 들을 수 있다.
송산동주민센터-서귀진지·작가의산책길-할망당-자구리해안-정방폭포-소정방폭포·소라의성-구두미포구·섶섬지기 / songsan-culturetrack.com

제주올레코스 꼬닥꼬닥 걸으며 제주의 자연과 마을을 즐길 수 있는 제주올레. 6코스와 7-1코스가 서귀포 시내를 지나가며, 제주올레여행자센터도 시내에 위치한다.
www.jejuolle.org

동홍천 힐링길 서귀포 시내를 관통하며 걷는 산책길로 일상에 지친 시민들이 가볍게 산책할 수 있는 코스이다.
산지물주차장-산지물물놀이장-굴왓교-고망물교-에벤에셀어린이집-우성빌라-열린병원

샛기정공원과 산책길 제주의 자연과 작가의 산책길이 만나 자연과 예술작품을 동시에 즐길 수 있는 힐링산책길이다.

걸매마을 산책길 걸매공원에서 윗쪽으로 걸어가다보면 마을로 향하는 좁은 골목길을 만날 수 있다. 골목 전망대에서 바라보는 뷰가 절경이다.

솜반천공원 #물놀이스팟 #샤워장 #산책로 #생태계체험공원 1

걸매생태공원 #생활스포츠 #아침산책 #야생조류관찰원 #생태연못 2

칠십리시공원 #천지연폭포_뷰맛집 #덕판배미술관 #작가의산책길 #예술+자연 3

새섬공원 #섬이_통째로_공원 #야경맛집 #오직_도보로만 #20분산책로 4

자구리공원 #피크닉하기좋은공원 #소남머리 #용천수와노천탕 #주상절리대 5

서복공원 #서복불로초공원 #불로초전설 #서복전시관 #서불과지 6

정모시쉼터 #서귀포_히든스팟 #족욕장 #물소리힐링 #여름엔물놀이 7

문부공원 #기적의도서관 #어린이와어르신이 함께즐기는_공원 #야외무대와농구장 8

태평공원 #유럽에_온듯 #자기학습주도센터 #2층에서보는뷰 #주택가공원 9

우리 동네의 매력은 무엇입니까?

① 축복받은 날씨!!
햇살에 빛이 부서지는 바다와 사시사철 변화하는 한라산 뷰는 덤!

② 도시가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로 아기자기한 요소가 곳곳에!!
간판, 조형물, 건물 난간, 화분, 숨은 골목, 평범한 집 앞 마당까지 카메라를 찾게 되는 포인트가 가득하다.

③ 깨어나라 나의 감각!!
차를 타고 10분이면 바다, 산, 계곡, 폭포, 숲에 닿고, 시내 곳곳을 걷다 보면 시장, 오래된 골목, 공원, 관광지 등등 다채로운 경험을 할 수 있다.

제석공원 #특이한벤치 #어린이공원 #걷기좋은_정남길 #옛_교회건물 10

굴왓공원 #공부하다_머리식히는_공원 #바람솔솔나무그늘 #옛_푸집 11

희망공원 #주택가_동네놀이터 #방과후아이들아지트 #동네공원 12

천지공원 #멋지고독특한 놀이기구 #87년도에_만들어진 추억가득_놀이터 13

중앙공원 #시장안_놀이터 #매일올레시장 #공영주차빌딩옆 #재활용도움센터 14

이중섭공원 #초가집옆_돌담산책길 #서귀포예술시장 #쉬어가기좋은_공원 #이중섭거주지 15

8. 서귀진지(서귀진성터)

조선 시대에 서귀포를 지키던 방어성곽의 유적. (제주특별자치도 기념물 제55호)
서귀진은 조선 시대 왜구의 침략에 대비해 만들었던 방어시설로, 제주에 만들어졌던 아홉 개의 진(鎭) 중에 하나다. 원래의 서귀진성은 홍로천(서홍천) 위에 있었는데, 1589년 제주목사로 부임한 이옥이 지금의 위치로 옮겨 쌓았다. 성에는 남문과 서문, 우물이 하나 있었고, 시기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성안에만 7채에서 11채 정도의 건물이 있었다고 한다. 1901년 서귀진성이 축소·폐지된 뒤로 대부분 사라졌다. 2009년에서 2012년까지 3차례의 발굴조사가 진행되었지만, 성벽이나 건물지의 훼손이 심해서 현재는 잔디밭 위에 진성의 흔적과 발굴된 집수정(우물)만 복원해 놓았다. 조선 시대 서귀진의 옛 모습은 1695년 제주목사 이익태가 남긴 [탐라십경도]에서 ‘서귀소(西歸所)’, 1703년 제주목사 이형상이 남긴 [탐라순력도]에서 ‘서귀조점(西歸操點)’ 그림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Tip! 서귀진성 안에 사각형으로 돌담을 두른 집수정이 원형대로 복원되어 있다. 이것이 서귀진성 안에서 식수로 쓰고, 주변에 농사지을 때 사용했던 우물 자리이다.

10. 새연교

새섬과 천지연 남측을 잇는 다리.
‘새연교’는 사람만 다니는 보도교로 2009년에 ‘새로운 인연을 만들어주는 다리’라는 의미를 담아 만들어졌다. 다리의 총 길이는 169m로, 다리 중앙의 독특한 형태의 탑은 제주 전통 고기잡이배인 ‘테우’를 모티브로 해서 바람에 부푼 돛을 형상화한 모양을 하고 있다. 새섬과 새연교는 시원한 공기를 느끼며 태평양과 서귀포항을 마주하는 산책로와 야간경관 코스, 데이트 명소로 사랑받고 있다.

11. 솜반내

서홍천과 연외천 하류에 사시사철 맑은 물이 모여 흐르는 생태하천.
솜반내의 물이 흘러 천지연폭포를 이루는데, ‘천지연(소)의 바깥에 있는 내천’이라서 ‘솜반내, 선반내’라고 불린다. 하천의 상류는 비가 안 올 때 마르는 건천이지만, 하류엔 용천수가 솟아 비가 오지 않아도 늘 풍부한 수량을 자랑한다. 솜반내는 서홍동과 천지동 사람들의 대표적인 물놀이 장소이다. 지금은 솜반내 위쪽 서홍교 부근에는 물소리를 들으며 쉴 수 있는 조용한 공원이 있고, 솜반내 아래쪽 걸매생태공원에는 운동 시설과 자연 체험장이 다양하게 조성되어 있어 생명력 넘치는 자연을 느낄 수 있다.

Tip! 서홍교 위로 주민들이 운영하는 마을 카페 겸 서홍동 문화센터 ‘솜반내 풍경’이 있다.

14. 서귀포매일올레시장

서귀포향토오일시장과 양대 산맥을 이루는 서귀포 대표 상설 재래시장.
오일시장이 오랜 역사를 자랑한다면, 서귀포매일올레시장은 1960년 초반 자연스럽게 생겨나 서귀포 최고의 시가지 상권이라고 할 수 있는 중정로와 함께 성장해 온 도심 속 시장이다. 상설시장과 함께 동명백화점, 목화백화점이 차례로 들어오면서 온갖 잡화와 문화시설, 시장 내 저렴한 먹거리까지 풍부해 1990년대 중반까지도 상인들과 장을 보러 온 사람들, 먹자골목을 찾은 중고등 학생으로 북적였다. 대형마트와 경제 침체의 영향을 받아 백화점도 문을 닫고, 시장의 활기가 줄었던 때도 있지만, 상인들의 노력과 올레길의 영향으로 지금은 서귀포 시민과 관광객이 모두 찾는 시장으로 자리 잡았다. 시장에는 수산물 거리, 잡화 거리, 야채 거리, 먹거리촌 등이 있고, 특히 시장 중앙에 물길이 흐르는 쉼터 주변으로 지역 특산물과 귤하르방빵, 한라봉쥬스, 흑돼지꼬치, 문어빵 등 새로운 먹거리와 떡볶이, 떡, 족발 등 오랫동안 자리를 지켜온 맛집들이 모여있어 미식여행을 즐기에도 좋다.

Tip! 떡볶이 매니아라면 ‘모닥치기’에 도전하라!! 모닥치기는 모듬 떡볶이의 일종으로 각 분식집마다 구성과 조리법이 다른 것이 매력이다. 서귀포시장 안과 시장 주변에 새로나분식, 짱구분식 등 오래된 오래된 모닥치기 맛집이 있다

LOCAL TIP
서귀포 시내에 차를 가져오는 사람들을 위한 쌀알팁
한아미(30대/서귀포에서 일하는 직장인)

당신이 만약에 차를 렌트했다면 금요일과 비오는 날의 퇴근길엔 서귀포 시내를 피해라.
차와 차가 만들어낸 행렬 속에 갇혀서 '느리게 살아간다는건 이런건가?' 싶어진다.
휴먼 불법 주차 단속을 피하기 위해선 되도록이면 서귀포시청 근처에는 주차 하지 말자. '잠시'란 생각에 4만원이 날라간다.

LOCAL TIP
주말 힐링은 서귀포에서!
맨도롱(40대 / 서귀포에서 인생전환점을 찾은 1인)

주말엔 반드시 서귀포로 가야한다. 이중섭거리에서 열리는 서귀포예술시장 때문이다. 핸드메이드 작가들의 다양한 작품을 구경하는 것만으로도 눈이 행복하지만, 구경하다보면 어느새 지갑을 열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행복한 쇼핑을 했다면, 지붕이 없어서 하늘이 천장인 서귀포관광극장과 이중섭미술관, 이중섭창작스튜디오도 들러보자. 재미난 공연과 전시까지 보고나면 더없이 완벽한 주말 완성!

18. 천지연 폭포와 난대림

하늘과 땅이 만나는 연못 ‘천지연’으로 떨어지는 폭포와 천연기념물로 가득한 생태계.
천지연은 계곡 길이 약 1km로, 가장 안쪽의 폭포는 높이가 22m, 너비 12m이며, 폭포가 떨어지는 곳의 수심은 20m에 달한다. 폭포가 떨어져 이룬 소에는 열대성 대형어종인 무태장어(천연기념물 제27호)가 살고, 주변의 절벽에는 습한 곳에서 자라는 멸종위기종 솔잎난 등이 자생해 천지연 난대림(천연기념물 제379호)을 이루며, 휘파람새, 도요새, 원앙(천연기념물 제327호) 등의 텃새가 둥지를 짓고, 그 밖의 여름 철새, 겨울 철새도 천지연을 찾는다. 계곡 위로는 아열대 식물인 담팔수(천연기념물 제163호)가 군락을 이루어 자생하고 있다. 계곡과 폭포로 인해 주변이 연중 온난 다습한 기후를 갖고 있어 천연기념물과 희귀생물이 모여있는 생태계가 만들어졌다.
폭포와 함께 이국적인 느낌까지 드는 천지연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신혼여행, 수학여행, 개인 관광 등 서귀포를 대표하는 관광 포인트이다. 곳곳에 사진을 찍기 좋은 포인트도 많고, 오래된 관광지인 만큼 전형적인 제주석 조형물도 많아 레트로한 사진을 남기기도 좋다.
관람시간 : 09:00~22:00 (매표 마감 21:20)
관람료 : 어른 2,000원, 청소년 및 어린이 1,000원

Tip! 천지연 폭포는 야경도 아름답기로 유명하다. 천상계 같은 신비로운 풍경을 만날 수 있다.

주변 갈 곳

서홍마을역사관

서귀포 하면 감귤!!! 제주에서 감귤을 키워 육지로 보냈던 역사는 백제까지 올라가지만, 서홍마을은 1910년대 일본에서 온주밀감을 들여와 처음 농장을 시작한 곳으로 알려져 있다. 서홍복지회관 2층에 자리한 마을역사관에는 마을 주민들이 직접 수집한 이야기와 생활상이 담긴 물건, 감귤 농사에 썼던 각종 농기구 등을 모아서 전시하고 있다.

하논

삼매봉 북쪽, 경기장으로 보일 정도로 넓고 움푹한 지형에 농사를 짓고 있는 곳이 국내 최대 규모의 마르형 분화구인 하논이다. 원래는 커다란 호수가 있었다고 하는데, 농지로 바뀌어 쌀농사가 쉽지 않은 제주도에서 오랫동안 벼를 키워 쌀을 생산하고 있다. 서귀포여자중학교 근처 하논 분화구 방문자센터를 하논 탐방의 시작점으로 잡으면 편하다.

돈내코

한라산 정상에서 흘러온 물이 만들어낸 암벽 계곡으로 사시사철 시원한 기운이 가득하다. 계곡 옆에는 야영장도 마련되어 있어 여름에는 야영에 짐을 풀고, 계곡에 들어가 물놀이로 몸을 식히고 있자면 신선이 부럽지 않다.

서귀포향토오일시장

날짜가 4와 9로 끝나는 날이면 현지인들의 삶에 더 가까운 오일시장이 열린다. ‘로컬의, 로컬에 의한, 로컬을 위한’ 시장이라 할 수 있는 오일장에는 제철 농수산물은 물론, 전통 과자 등 여러 먹거리, 농사지을 때 입기 편한 옷이나 수확물을 담기 좋은 가방 등 농사용 잇템으로 가득하다. 운이 좋으면 맘에 드는 레트로한 물건도 발견할 수 있다.

솔오름전망대와 솔오름(미악산)

서귀포 시내와 바다를 함께 내려다보는 전망이 멋있는 장소이다. 솔오름은 정상까지 왕복 3km,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 걸리는 코스인데, 난이도가 있는 편이라 등산에 익숙하지 않다면 시간과 체력을 여유 있게 잡고 가는 것이 좋다. 시간과 체력이 아쉬울 때는 오름 바로 아래에 있는 전망대로 가면 된다. 야경도 매력적이라 데이트나 드라이브 코스로도 좋다.

쇠소깍

제주시에 용연이 있다면, 서귀포에는 쇠소깍이 있다. 기암괴석이 푸른색의 물웅덩이를 병풍처럼 둘러싸고 있는데, 그 위로 숲이 우거져 용이 살았다는 전설만큼이나 신비로운 느낌을 준다. 주변에 각기 다른 매력의 카페도 많아서 힐링 코스로 좋다.

정방폭포와 소정방폭포

천지연 폭포, 정방폭포, 중문의 천제연폭포는 제주도의 3대 폭포이다. 그중 정방폭포는 동홍천을 따라 흘러온 물이 건물 7층 높이에서 바다로 바로 떨어지며 포말을 일으킨다. 폭포 동쪽엔 7m 정도의 높이의 소정방폭포가 있어서 여름이면 그곳에서 사람들이 폭포 물을 맞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삼매봉과 외돌개

삼매봉은 서귀포 시내에서 가장 가까운 오름(기생화산)이다. 외돌개나 남성마을 삼매봉 중계소입구에서 올라갈 수 있는데, 정상에 있는 팔각정에서 바라보는 한라산 조망이 멋있다. 외돌개 정류장에서 바다 쪽으로 내려가면 넓은 잔디밭과 바다 한복판에 홀로 우뚝 솟은 바위 ‘외돌개’를 볼 수 있다.

제주월드컵경기장

2002년 한일월드컵을 위해 만들어진 축구 전용 경기장으로, 현재 ‘제주 유나이티드 FC’의 홈구장이다. 경기장 앞 광장에서 체육행사 이외에도 다양한 행사가 열리며, 경기장 건물 안에 실내 워터파크와 찜질방이 있는 ‘제주워터월드’, 서귀포 유일의 영화관인 ‘롯데시네마’, 그 밖에 박물관 등이 위치해 있다.

왈종미술관

제주도의 매력에 빠져 서귀포에 거주하며 작품활동을 하는 이왈종 화백의 미술관 겸 작업실이다. 둥근 찻잔을 닮은 건물 속 전시실과 도예실, 작업실에는 꽃과 새와 노루, 물고기 등이 등장하는 그림과 조각을 통해 행복과 불행, 사랑, 외로움 등을 표현하고 있다.